

# 신인 작가 등용문...한국 사진예술 위상 높였다

### 제14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시상식 성료 일반 대상 이견일, 학생 대상 손정완·박진호 영예

광주매일신문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는 전국사진대전이 올해로 14회를 맞은 가운데 명실상부 신인 사진 작가 배출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 신문사 중 유일하게 14년째 전국사진대전을 열면서 한국 사진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와 7일 오후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제14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과 강춘자 광주매일신문 전국 사진대전 대회장을 비롯해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심사위원, 수상자와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제14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일반부에선 두 여인의 대비를 통해 젊은 날을 회상하는 모습을 영글에 담아낸 이견일(78·광주)씨의 사진 작품 ‘젊은날의

회상’이 영예의 대상(광주매일신문 사장상)을 거머쥐었다. 부상으로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됐다.

학생부 공동 대상은 손정완(광주 문성고 2)군과 박진호(충남 홍동중 2)군에게 돌아갔다. 각각 상장(광주교육감상·전남도교육감상)과 장학금 3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의 초대작가상으로는 사진 작품 ‘달빛’을 출품한 조기영 작가가 선정됐다.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는 축사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그동안 끊임 없이 정진하며 노력한 결실이 이뤄진 의미 있는 자리다”며 “올해로 14회를 맞은 광주매일신문 사진대전에는 많은 사진 동호인 분들의 관심으로 총 2천100여점이라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대회를 위해 고생해 주신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와 광주사진협

회,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춘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광주매일신문 사진대전 시상식이 3년 만에 열리



전국 사진 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치러진 '제14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시상식이 7일 오후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강춘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장, 대회 심사·운영위원,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게 됐다. 광주매일신문 임직원 분들에게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 대회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다”며 “사진 꿈나무들을 양성하고 대한민국 사진 예술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광주매일신문

사진대전이 명실상부 전국 신에 사진작가들을 발굴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사진대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제14회 광주매일신문 전국 사진대전에는 2천100여점(일반부 2천여점·학생부 100여점)이 출품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최명진기자

## 모양·재료·맛까지...여수 '특화빵 5총사' 인기몰이

### 옥수수빵·갓도넛·삼합빵·하멜등대빵·몽돌빵 등 매출 급성장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에서 모양·재료·맛이 독특한 특화 빵 5총사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빵으로 옥수수빵, 갓버터도나스, 삼합빵, 하멜등대빵, 몽돌빵 등이 있다. <사진>

이들 빵의 공통점은 지역 청년과 여성이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것이다.

여수에는 옥수수, 돌산감, 거문도숙 등 대표 특산물이 있다. 이 중 옥수수를 활용한 빵 종류가 다양하다. 옥수수빵, 옥수수 차아바타, 옥수수 소금빵 등이 있다. 옥수수 모양의 옥수수빵을 만드는 코너(corn)는 전년 대비 310%, 옥수수 차아바타와 쿠키를 만드는 옥수는 66% 상승한 약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여수의 특산물 돌산감을 활용하는 업체도 있다. 갓도넛의 이색적 조화로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 서울에도 분점을 낸 갓버터도나스와 여수의 명물 삼합을 빵으로 만든 삼합빵이다.



김진우 갓버터도나스 공동대표는 “수제 튀김 도넛 속에 다소 느끼할 수 있는 크림의 맛을 여수 돌산감의 알싸함으로 잡아주는 단짠단짠 매력 있는 디저트”라며 “하루 600박스 한정 판매하고 있지만 만들기가 무섭게 동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삼합빵’을 만드는 강나리 여수삼합당 대표는 “여수를 대표하는 음식인 여수삼합(갓감치·문어·돼지고기)은 혼자 오는 관광객이 먹기 힘들다”며 “삼합을 작게 다져 버거 빵 속에 넣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삼합빵은 여수 갓감치의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매력적이며 한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든든함이 특징이다.

여수 거문도의 해풍숙을 활용한 빵도

있다. 보통 숙을 활용한 후식은 떡을 떠올리기 쉽지만,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춰 빵도 최근 출시했다.

딸기모찌(찰쌀떡) 판매로 유명세를 탔던 미미협동조합에서 여수의 거문도해풍숙과 찹쌀을 이용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여수밤바다가 보이는 낭만포차거리에 위치한 대표적 조형물 하멜등대 모양을 본뜬 ‘하멜등대빵’이다. 또 한 옥수수를 이용한 ‘하멜등대빵’도 있다.

김선옥 미미협동조합 대표는 “여수 지역 농가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쌀 등 우리 농산물을 100% 사용하고 있다”며 “여수를 대표하는 빵이 되기를 바란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근 개업한 슈블렌은 여수 거문도숙 크림과 여수 옥수수크림이 들어가는 몽돌빵을 출시해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독특한 모양과 맛의 특화 빵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사진 인증 욕구를 불러일으켜 짧은 시간에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남도 빵지순례’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전남산 계란 안심하고 드세요”

### 도, 생산·유통 달걀 살충제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전남도는 7일 “산란계 농가와 시중 계란 판매업체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돼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남산 계란의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소비자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전남산 계란을 누구나 안심하고 먹도록 전남도가 산란계 농장과 계란 판매업체를 빈틈없이 관리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계란 살충제 검사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 대비 6월에 생산단계인 산란계 농장 114개소(전체 127개소 중 휴폐업·계란 미생산 13개소 제외)의 계란에 대해 비렌트린 등 34종을 집중 검

사했다. 또한 최근 11월까지 도내 23개소의 하나로마트·로컬푸드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계란의 살충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생산농장과 유통판매업체의 계란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전남도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는 산란계 농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홍보물 배부 747매, 문자발송 689건, 방문홍보 279회 등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청소·세척 작업을 실시토록 지도·홍보했다.

특히 과거 부적합, 살충제 사용 이력, 환경 조사에서 참고치가 초과된 농가 등 관리 대상 농가는 시·군별 전담자를 지

정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도록 청소·세척 지도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공동 방제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계란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도내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및 식용란 수집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감시를 함께 추진했으며, 위반이 확인된 1개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도현 동물방역과장은 “계란은 신선하고 안전한 영양식품으로, 전남에 유통되는 계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앞으로도 산란계 농장과 계란 유통업체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전남산 계란이 국민의 대표 먹거리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소방, 공동주택·노인시설 안전대책 추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7일 “겨울철 대형 화재에 대비해 2023년 2월까지 공동주택과 노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에 관계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피난시설 활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교육 ▲지하주차장 소방 시설 유지·관리 방법 ▲겨울철 화재예방 교육영상 배포 등이다.

또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공동주택 화재안전의 날’로 지정해 홍보전단지 배부, 겨울철 화재예방 안내방송 송출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박성강기자

# 함께 이하는 세상, 로 우리가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 하였습니다.

장애이 고용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새청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8 2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개시일** 2022. 11. 21. (월)

\*\* 새로운 청사에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19층)가 함께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지하철 양동시장역 하차 (도보 400m) 1호선 이용  
버스 천교 하차 시 (도보 90m) 59, 31, 71, 61, 65, 79, 177,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번 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